



## 세종시 산후조리원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취시'

### 신생아 8명 감염, 영입중단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종사자 감염관리 대책 강화

세종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보건당국에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내 모 조리원을 퇴소한 신생아가 38도 넘는 고열 증세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 탈수 등 증세를 보인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생후 3~35개월 영·유아가 주로 감염된다.

조리원 측이 그날 원내 전체 신생아 14명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를 한 결과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열 증상을 보인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리원은 보건당국에 발열 증상이라고만 보고하고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시는 전했다.

조리원은 로타바이러스 잠복 기간(6일이 끝나는 9일까지 예정)으로 영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일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입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혹은 의심환자로 진단받으면 관련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근무가 제한된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일례로 산후조리원 종

사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환자로 진단받은 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 발생 감염병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32.8%),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가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입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겨울철 운전자 위협 '도로 살얼음' 관리구간 2배 늘린다

###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도로교통안전 강화대책'... 사고 빈발구간에 도로 열선 시범 설치

정부가 결빙 취약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상시 응답, 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 취약 관리구간을 2배로 확대한다.

또 살얼음 사고 빈발구간에 도로 열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7중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되는 등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빙 취약 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을 시

행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TF를 통해 결빙에 취약한 구간을 전면 재조사, 현재 193곳인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403곳으로 확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급경사·급커브 구간을 중심으로 결빙 취약구간의 10%에 달하는 180km 구간에 배수 축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를 설치한다.

취약 관리구간 등급별로 자동 연수분사시설을 확충,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기로 했다.

또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이다.

살얼음 신속탐지, 즉시알림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

련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와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 감지해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폐쇄회로(COITV)도 설치한다.

올해 안에 결빙 취약·관리구간을 중심으로 기존 CCTV를 스마트 CCTV 500대로 우선 교체하고 4차로 이상 간선구간 등에도 2025년까지 매년 22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권을 위해 이번엔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관광활성화 동구가 주도해나갈 것"

### 황인호 동구청장 본사내방

황인호 청장은 7일 <대전투데이> 본사방문한 자리에서 "no.1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관

광활성화는 동구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며 "외부에서 대전으로 방문객이 늘어난다는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역 관광 활성화 기조에 발

맞추어 더욱 왕성하게 관광 동구의 저변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동구의 대표축제인 큰 호수를 얻은 대청호 빛꽃축제, 대전 블루스 축제, 산내 포도축제 등 다양한 입맛

에 맞춘 축제들이 탄생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역하면 가락국수, 우동 등이 생각날 수 있도록 대전역 주변에 합법적인 열차가 페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며 "대전의 심장인 대전역, 원도심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 문화재청 대전시·부여군 등과 무형유산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대전광역시·부여군·양주시·평창군·진도군 등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5개 시·군과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오는 9일부터 체결한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1개 도시만을 선정하던 것을 올해는 5개 도시로 선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5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

역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계기 마련'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선정 시·군의 지정·비지정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 목록화·기록화, ▲ 무형문화유산 도서발간, ▲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의 대상을 예년과 달리 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한 만큼 전국의 무형유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무형유산이 지역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힐링선물공산인승

울 설명절에도, 소중한 사람에게

국립무형유산원

금산군



# 정부 대북정책 '강경책 추진' 36.1% vs '현행 기조 유지' 28.1%

## <리얼미터> 새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 대한 국민여론 조사

새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강경책 추진'이라는 응답이 30%대 중반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현행 기조 유지'와 '유화책 추진' 응답 역시 각각 20%대 후반과 중반으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과 남북관계 경제 국면이 장기화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YTN<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을 물어본 결과,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 추진' 응답이 36.1%, '현행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 기다림(현행 기조 유지)'이 28.1%, '북한의 민생·경제 관련 제재 완화 등 유화책 추진'이 25.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5%. 세부적으로 '강경책 추진' 응답은 대구·경북(PK)과 충청권, 서울, 60대 이상과 5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현행 기조 유지'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유화책 추진'은 호남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대북정책 방향이 팽팽하게 나타난 지역과 계층이 여럿이었지만, '강경책 추진'과 '현행 기조 유지'는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에서 팽팽하게 엇갈렸고, '현행 기조 유지'와 '유화책 추진'은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유화책 추진'과 '강경책 추진'은 40대에서 서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책 추진'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60.0%)과 대전·세

종·충청(45.6%), 서울(43.8%), 연령별로 60대 이상(38.4%)과 50대(36.6%), 이념성향별로 보수층(58.8%)과 중도층(39.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72.0%)과 무당층(51.6%)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현행 기조 유지' 응답은 정의당 지지층(54.4%)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유화책 추진' 응답은 광주·전라(38.7%)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경기·인천(강경책 추진 29.5% vs 현행 기조 유지 30.0%)과 부산·울산·경남(31.7% vs 33.4%), 30대(38.3% vs 38.4%)와 20대(33.0% vs 32.0%)에서는 '강경책 추진'과 '현행 기조 유지' 응답이 비슷했고, 진보층(현행 기조 유지 35.5% vs 유화책 추진 39.8%)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4% vs 42.3%)에서는 '현행 기

조 유지'와 '유화책 추진'이, 40대(유화책 추진 36.4% vs 강경책 추진 33.2%)에서는 '유화책 추진'과 '강경책 추진'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04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응답률 제외 목적 표집률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정복기자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 전국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지난 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시민예술공간에 전국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에 입상한 우수작품 20점을 전시한다. 시민예술공간은 전시공간이 부족한 단체나 동아리가 마음껏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주시의회 통로에 개방한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술공간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제19회 전국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에 참가한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위한 '스쿨존 확대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교통사고 위험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지정 요청 가능하도록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

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울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 될 것"

11일 공주시 백제체육관 '여전히 촌놈, 박수현'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예비후보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여전히 촌놈, 박수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여전히 촌놈, 박수현'의 저자인 박 예비후보는 이 책을 통해 국회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초심을 잃지 않

겠다.'라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출간을 준비하면서 걱정부터 앞섰다"라며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의 목소리를 마음속 깊이 담겠다는 저의 초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출간을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청와대 대변인을 거치면서 국정운영 경험담과 언론과의 관계 등 청와대 생활을 담담하게 묘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기적의 크로바상' 대상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시)이 7일 국제대학교연합회(IUA)와 한국대학총장총연합회(회장 정장덕)로부터 '기적의 크로바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코자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지역 원도심 청년 창업 활성화 등 다문화에서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와 함께 도민생활 개선을 위한 4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도 행정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형기자

## 전병덕 예비후보 "중구에 K-POP 전용 아레나 건립"

"중구의 가치를 키우다!"



전병덕 대전 중구 예비후보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대전 "중구의 가치를 키우다!"라는 의미를 담은 한류문화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K-POP 전용 아레나 건립 정책을 발표했다.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정책 발표에서 전병

덕 예비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에 15,000석 이상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은 없으며, 대형 공연은 주로 잠실 실내체육관, 올림픽 체조경기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체육 시설로서 공연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이 안 되어 공연관람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연에 있어 음향 장비에 대해 "해의 팝스타의 공연에는 공연장 천장에 리깅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의 변화 뿐 아니라 심지어 가수의 공간 이동까지 가능한 공연을 보여주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적으로 리깅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어 매우 제한적인 공연만을 볼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레나 공연장은 대전의 새아구장 건립 후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제시 했으며, 제원은 민간 자본등을 유치 할 계획을 발표했다.

끝으로 "국토의 중심 대전에서 '한발에 어울리는 아레나 공연장을 신축하여 지역의 경제뿐 아니라 유입을 대표하는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에 버금가는 문화 예술의 축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K-Pop이라는 한류스타가 되기 위해 물러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아레나 공연장은 늦었지만 필수"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아산시, 확대간부회의서 '아산의 내일' 준비 강조

읍면동장대상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성장의 기쁨을 뒤고 50만 자족도시 더 큰 아산의 터전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우리는 인구유입 등 양적성장의 기반이 있어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질적 성장이라는 특성을 지녔다. 올해 산업단지, 기업유치, 도시개발 등 더 큰 아산의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곡교천 르네상스 등 아산의 내일을 준비하는 6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가장 중요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민의 일상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생활 행정을 올해도 내내에도 민선7기 아산의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년 단위의 순기회 계획이 세워지는 시정의 특성상 "하나

의 일을 처리하고 다음 일을 준비해 진행하는 순차적 업무추진 방식은 성과달성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동시병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작년 역대 최고인 1조3908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미확보 사업은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재도전해 올해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보고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국가적 과제인 보건복지분야 통합서비스 선제적 대응, 환경형도로인 아산시외곽순환도로 개통 및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등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도 주문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대전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2019년도 청년정책 추진성과·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대전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신웅)는 7일 서구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청년 특위 김신웅 위원장, 김신웅 위원장은 "지난해 대전 강정수 부위원장, 조성호·최규

추진하였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춘정책거버넌스의 내실화와 청년 거버넌스 구축 등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특위 활동 기간중 서구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귀담아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특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청년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정환기자

## 더민주당 대전시당,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권익보호 '앞장'

민주당 대전시당 민생TF, 7일 시당서 대전 경비직 노동자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민생TF(위원장 오광영)가 대전 지역 경비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 민생TF는 7일 오후 2시 시당 회의실에서 대전지역 경비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현장 실태 설명을 나선 박치현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사국장에 따르면 경비직 노동자들은 ▲입주민 '갑질' ▲고용형태 ▲휴게시간 보장 등 크게 3가지 문제로 압축됐다.

입주민 갑질 문제로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개인의 도를 넘은 이른바 갑질의 분

자들 역시 같은 문제와 함께 일부 아파트의 원천 없는 관리 운영 실태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의 반 노동적이고 반 인권적 대우에 대해 성토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민생TF 오광영 위원장은 "신축, 재건축아파트에 경비직 노동자아파트 청소 노동자 등 포함을 위한 휴게실 의무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내전형 공동주택 입주자-근로자 상생모델' 추진과 더불어 모범단지를 선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입주민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의 고용환경개선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TF는 이날 경비직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 구성구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대전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 혁신도시 지정 앞장”

## 이은권 국회의원 (대전 중구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 자유한국당)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공정과 정의가 다시 세우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한 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졌으며 국가의 안보와 미래는 어둡게만 갔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물신과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다. 이 의원은 “더 이상 힘의 논리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저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새해에는 국가정책도, 정치도, 국민도 달라져야 하며 국민 대통합의 정치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저부터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낡은 기득권 정치 의식을 타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투데이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이은권 국회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안남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던 날의 다짐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초심 잃지 않은 모습으로 신의의 정치,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고자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년 차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에 출마표를 던지며 다짐했던 건 ‘원도심 중구’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임기 동안 하루하루가 숨찬 나날이었지만 저의 진심을 믿음에 보답하고자 약속드렸던 핵심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하며 중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몇 언론에서는 저를 가리켜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 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을 하는 ‘중구 현안 해결사’라고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별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민여러분들께서 응원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또한, 여러모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속에서도 국민들께 안정을 드리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에 임하였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구민여러분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의원님의 주요 의정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첫째로 정부의 능동 대응과 미약한 추진의지로 지난 10여년 동안 지지부진하여 지역민들의 원성과 우려가 큰 현안이었던 옛 충남도청사 부지문제 해결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국회 등원과 함께 저는 1호 법안으로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2017년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서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원도심 공동화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로, 대전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위하여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0월 31일 각고의 노력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대전 지역인재들이 대전으로 이전 한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을 받아 순차적으로 900여개의 새로운 취업기회가 생기고, 이는 지역대학의 질적 향상과 청년인구 유출방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노후된 원도심 도시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중구의 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먼저 유천동, 중촌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여건개선과 주거안정화를 통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또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생활SOC사업 공모에 3곳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직은도서관, 문화센터 설치, 그리고 문화동 571-14에 27면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빗물로 인한 침수예방과 생활오수, 하수의 완벽한 분리로 악취제거와 수질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대전전 일원 하수관로 정비, 석교동 일원 노후관로정비, 대전전 최안 및 옥계동 일



원 하수관로 정비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구도심 활성화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신축아파트가 중구유치로 최종 결정되었고, 2016년 예결위 위원 당시부터 대전전의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갖게하게 주장하여 2020년 국가하천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구민여러분의 덕분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넷째로,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조성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대흥동 원도심 상생주차장, 도경찰청 부지에 공공청사복합개발, 커피브릿지 건설, 중앙로 마중물프로젝트, 원도심 근대문화회관 조성 등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의 주춧돌이 되어 중구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대전역 KTX문제와 원도심 교통체증 해결, 사통팔달교통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수행하게 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이 지난해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해 최종 트램으로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서대전육교, 테미고개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이 현재 대전시관광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계백로(국도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했던 정림중 버스대교 간 도로개설 사업의 착수입니다. 대전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덜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대전역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용객 저조 및 시의 서대전역 활성화 계획 담보문제로 감편 이야기가 나왔으나 2018년 12월 코레일의 서대전역 경유 KTX 감편 계획을 적극 중재하여 감편 철화를 관철시켰습니다.

이후에 서대전역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 환경을 개선하였고 서대전역과 비래동을 오가는 622번 버스 노선을 신설하였고 현재에도 다양한 활성화 계획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굴곡노선으로 고속철도 운행에 저속철 논란을 불렀던 서대전-논산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올해 그 결과가 나와 내년이면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광역철도 1호선이 완성되면 서대전역 이용객은 자연스럽게 늘

것이고 이는 서대전역 KTX중편으로 이어질 것이고 주변상권도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가 매우 침체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대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150만을 웃돌던 대전 인구는 2017년 150만 2000명을 마지막으로 2018년 149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147만 6955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통해 2047년이면 대전 인구가 133만 명으로 2017년(153만 명) 대비 20만 명(13.3%)이나 축소될 것이라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종시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잠정 지역소득’에서 대전의 경제성장률은 0.8%로 8대 도시 중 세 번째,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운수업 부분에서 광장히 여러 가지 현상이 안 좋았고요.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직전 연도에 비해 0.2%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경제도 어려웠지만 특히 대전지역 경제에는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비도시인 대전의 성장동력 부재가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반기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 대전시가 대학연구개발특구라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출연연구소 활성화 및 기업지원문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과 정부지원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에는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대전, 충남은 세종시 건설 등의 사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과 인구감소라는 악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제가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년층의 대전 이탈이라는 급한 현안은 불을 껐습니다.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관련 개정 법

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에 기관이 하나 더 생기고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 지적한 대전의 인구, 경제문제를 해결할 모든훈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직원들의 이주, 관련 기업들의 대전유치, 취업과 창업의 용이 등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국회도 여야간의 정쟁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요. 우리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요.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서로 정쟁에만 휩싸여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우리 정치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 얘기만 고집하고 정치가 아닌 권력 싸움을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더 이상 국민께서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차기 대선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국가의 안보와 미래는 어둡게만 갔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불신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권력에 취한 정부여당은 정치와 국회를 독점해서 국민의 피땀 같은 예산안을 납치시키더니 선거법, 공수처법도 결국 납치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에 예산의 62%를 조기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실정론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트들을 빼서 뒷돌을 고고 있는 무리수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과거기속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문

제점, 특히 재정적 문제가 문제인케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정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욕심이 눈을 가리는 아침이 오면 이성은 일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주로 하는 이기심을 뜻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감정이 뒤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 이은권을 선택해주신 우리 중구민의 자존심은 지키자는 마음으로 공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자를 위해 법과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제대로 적용해주시는 자가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정직과 정의,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고 약자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초심,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각오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중구 발전을 기반으로 대전 발전을 목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혁신도시법의 통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라는 역차별이 해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이 국가균형발전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혁신도시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합니다.

또한, 원도심활성화의 기반의 될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문제해결을 비롯해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공을 드려왔고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이은권은 대전과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물론이고 대전의 경제발전을 위해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이끌어낼 복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이정복 편집부국장







● 동 정 ●●●

1월 중 언론인과의 대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1월 중 언론인과의 대화에 참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황선봉 예산군수는 8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김석환 홍성군수는 8일 오전 10시 홍성읍에서 열리는 2020년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에 참석.

제1차임시회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8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 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임시회에 참석.

세종시체육회장 선거

3명 후보등록... 15일 현장투표

오는 15일 실시되는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5일 양일간 후보등록 접수를 한 세종시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에 김부유·박순영·정태봉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등록을 마친 기호 1번 박순영(57) 트리플에이파트너스회장, 기호 2번 정태봉(60) 유진통신공업대표, 기호 3번 김부유(55) 현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3명은 후보등록과 함께 6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에 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체육회장 선거 유권자는 14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돼 오는 15일 이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현장투표를 진행 세종시체육회장을 선출한다.

김태선 기자

충남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국토부안에 충남 23개 사업 반영

총 연장 193.79km에 3조 474억 원 규모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안에 태안 이원(만대항)~서산 대산(독곶리) 간 국도 건설 등 2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토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이 계획에 일단 포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5차 계획 대상 사업안에 반영된 도내 23개 사업은 총 연장 193.79km에 사업비는 3조 474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도 11개 노선 75.87km 1조 698억 원, 국도 대체우회도로 5개 노선 52.2km 1조 435.8억 원, 국지도 7개 노선 65.72km 541.8억 원 등이다.

이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18개 노선이며, 나머지 5개 노선은 사업비 500억 원 미만이다.

이번 반영 노선 가운데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데다,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로림만 초입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2.5km 규모의 해상교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5.61km로,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도는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km에서 2.5km로,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대항~독곶리 해상교량은 또 최근 개통한 원산안면대교, 내년 개통할 해저터널과 함께 충남 서해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와 함께 이번 국토부안에 포함된 사

업으로는 ▲태안 신방~목천 4차로 신설 15.9km 5044억 원 ▲보령 주산~웅천 4차로 확장 10.99km 1730억 원 ▲당진 채운~송악 4차로 신설 10.78km 1727억 원 등이 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번 성과를 얻었다.

5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500억 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산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5차 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된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제도 개편 시행

세종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제도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6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진다.

다만,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종전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7.5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산금지급)하는 경우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

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산금지급)하는 경우는 1세대 4주택 이상 4%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아동인구 1만 5900여명으로 조사

홍북읍 7286명 가장 많아... 홍성읍 6324명

홍성군이 아동특화형 복지정책을 수립한 결과 아동인구가 총 1만 5900명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읍면별 아동인구수 분포는 홍북읍이 7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성읍 6324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면은 결성면 92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은 광역행정중심지로 인구유입이 촉진되고 있는 홍북읍이 26.5%로 가장 높았다.

가구별 아동수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저조현상을 반영하듯 아동가구 중 아동 1명인

가구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당 평균 아동수는 1.7명에 그쳤다.

아동 전입 사유는 주택문제가 42.9%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문제 20.9%, 직업문제 17.3%가 뒤를 이었다.

인구동향 파트에서는 2018년 홍성군 출생아수는 627명으로 확인됐으며, 홍북읍이 제일 많은 384명, 홍성읍이 196명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군의 다문화 출생아수는 52명으로 전체 출생아 대비 7.4%로 확인됐다.

출산연령은 2018년 32.04세로

연령이 2009년 30.6세 이후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8년 평균초혼 연령은 남자 33.3세, 여자 29.2세로 드러났다.

군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기초 자료 등 총 6개 부문 104개 지표로 폭넓게 활용했다.

이번 군이 고시한 아동 복지 통계 작성시점은 2019년 5월 31일 기준이며,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으로 설정했다. 통계표는 ▲인구, 가구 ▲인구동향 ▲재산 ▲건강 ▲복지 ▲교육 6개 쟁점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2020년 신년하례회

새해 덕담 주고받으며 군 발전 위한 노력 다짐



예산군 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2020년 신년하례회'가 7일 더센트럴웨딩홀에서 열려 지역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예산문화원(원장 김시운)에서 주관한 2020년 신년하례회에는 황선봉 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이승구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각계인

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황선봉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 동안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형 관광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예산 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홍성군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박준용 씨 62% 득표율로 당선

5일 충남 최초 온라인투표

홍성군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박준용(65) 전 홍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치러진 홍성군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160명 중 152명(투표율 95%)이 투표한 가운데 94표(득표율 62%)를 득표해 당선됐다.

홍성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규)는 지난 12월 26일까지 2명의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수 160명을 확정하였고,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충남 최초 온라인투표(개인 휴대폰, PC)를 실시하였다.

박 당선자는 "홍성군체육회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홍성군 체육회 임원과 이사, 회원종목단체 회장과의 협의를 포함한 모든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홍성군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자는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교류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 ▲엘리트체육을 통한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역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홍성군체육회 발전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준용 홍성군체육회장은 오는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정환 기자

대전서구야구협회장기 2020년도 모집공고

협회장기 대회 개요

- 리그 : 2월중 개최
- ▶ 포스트리그 - 4부 A·B 조 (각 15개팀)
- ▶ 알파리그 - 3부 (15개팀)
- 4부 A·B 조 (각 15개팀)

• 대회방식 ▶ 14경기-정식경기/2일제

• 등록신청

- 개별팀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 ▶ [http://www.gamesone.kr/league/779q\\_idx=489](http://www.gamesone.kr/league/779q_idx=489) 모집공고 및
-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감독·총무 핸드
- ▶ <https://band.us/band/75708708> 가입 모집공고 및
- 직포실"가입신청서" 작성 후 kishmk@hotmail.net 로로 접수 바랍니다.

장기 신청

- 참가 우선순위 및 모집기간
- ▶ 1차모집 : 2019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30일까지 (기존 회원사 부처 우선 접수 받습니다.)
- ▶ 2차모집 : 2019년 12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우선순위)

• 사용구장

- ▶ 원천구장(김천구장)
- ▶ 현포천다목적(대전고등학교, 충남중학교, 한일중학교)

• 문의전화

- ▶ 010-4442-7752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김태선 사무장)
- ▶ 010-2220-9969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김형태 심판장)

(기타) 대회규정 및 대표자회의는 추후 공지합니다.





우리/동네

### 천안시,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리 향상 위해 전면 개선

# ‘천안행복콜’ 택시 시스템 개선



천안교육지원청, 겨울방학 기간 동안

## 기초학력 지도강사 현장 지원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학교지원센터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등 순회교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한글 미해득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명의 교사가 4개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 수준에 따른 밑받침 지도하며, 기초학력 집중 지도로 학업 성취 의욕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도 지원하고, 강사비 지급 등 행정적인 업무와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가경신 교육장은 “2020년 천안교육은 책임지도 역량 강화와 지원 확대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습 부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지도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회복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이재영 천안시 서북구청장

## 읍면동 노인회 분회경로당 방문

이재영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7일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등 읍면동 노인회 분회경로당 4곳을 찾았다.

이 구청장은 경로당 노인 복지향상 및 조직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노인회 분회장을 격려하는 물론 경로당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이어갔다.

이재영 구청장은 “지역발전의 위해 애쓰시고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절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들의 쉼터와 여가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대받는 섬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성정동 소재 닥터케이 신발가게

## 어린이 위한 명품 수제 신발 후원

천안시 성정동 소재 닥터케이 신발가게(사장 변재욱)가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로 어린이를 위한 신발 44켤레를 후원했다. 변재욱 닥터케이 사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우리 어린이들이 풍요로운 한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신발을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발을 후원받은 한 부모님은 “아이가 새해맞이 선물로 신발을 받고 즐거워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문환 봉명동장은 “경자년 첫 후원인데 뜻깊은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도 활발한 후원문화로 각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가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리 향상을 위해 ‘천안행복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존 네비게이션으로 호출을 수신 받던 방식이 기사의 스마트폰으로 호출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근거리에는 다수의 택시기사에게 콜이 전송돼 빠른 배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복콜(554-1000) 전화 이용 시 행복콜 상담원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음성자동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사를 호출하고, 배차가 완료되면 승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해



차량번호와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알려준다.

또 행복콜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승객이 승차 위치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고, 배차 완료 시 차량 위치와 차량과의 거리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을 물론 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까지 추가됐다.

시는 앞으로 택시기사의 행복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 카드수수료를 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콜 거부 시에는 콜 중지 또는 제명 등 강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9000만원의 구축비와 연간 7000만원의 유지비용 등 총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기존 매년 4억씩 들었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택시 배차를 유도해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 천안시 서북구,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편의시책 운영

### 납세자 불편과 혼란방지,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납부 위해 여러 편의시책 운영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재영)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실시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여러 편의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

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북구는 양도소득 지

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월까지 한 시점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천안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신고·납부 토록 출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탁소로 자동연결돼 간편하게 신

고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는 천안세무서 외 서북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사전발

송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 신고없이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신고간소화제도도 도입된다.

김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 청룡마을 신문 1호 ‘청룡시선’ 발간

### 청룡동 관련 정보 제공하기 위해 기획·제작

천안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병화)가 청룡마을신문 제 1호 ‘청룡시선’을 발간해 화제다.

청룡마을신문은 지난 한 해 동안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청룡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제작했다. 위원회는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했다. 소식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

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현황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청룡동 현황, 지역 내 자생단체 활동 공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원은 “자체 편집위원을 구성해 마을신문에 올릴 내용 등을 논의하고 직접 글을 썼다”며 “이번 활동은 지난해를 되짚어 보며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윤병화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담긴 진정한 주민자치 소식지를 발간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발간해 주민 곁에서 호흡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천안시 서북구, 1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 따라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재영은 오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0년 1월 확인조사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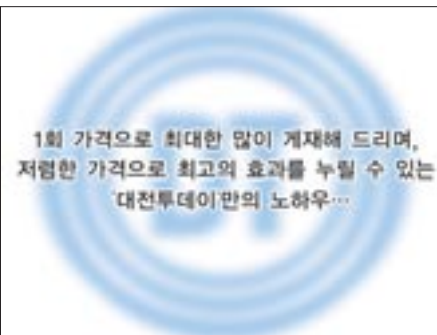
매월 실시되는 확인조사는 현재 연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수급자 변동이 큰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공적자료를 변경해 변동대상

자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서북구 1월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를 포함, 1867구 380명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자격과 급여가 변동유

지, 중지, 감소, 증가될 수 있다.

김선자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격의 적정성유지도 중요하지만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변경 등 주요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해 어려운 이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천안시, 노인스케일링 · 불소도포 무료 제공

천안=이정복기자

### 동정

#### 여성신년교례회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 대행 = 8일 오전 11시 30분 아이비웨딩홀에서 열리는 2020년 여성신년교례회에 참석.

#### 충남교육장협의회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8일 오전 10시 제주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충남교육장협의회 참석.

#### 여성신년교례회



인치건 천안시의회의장 = 8일 오전 11시 30분 아이비웨딩홀에서 열리는 '2020 여성신년교례회'에 참석.

#### 천안시, 노인스케일링

#### · 불소도포 무료 제공

천안시가 노년층을 위해 치석 제거 및 충치 예방 시술 보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노인의 잇몸질환과 우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올바른 잇솔질과 구강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서북구 보건소(041-521-5950), 동남구보건소(041-521-5044), 직산보건지소(041-521-2573), 병천보건지소(041-521-5044)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무료 보건 서비스 제공은 1인당 1년에 1회로 제한되며,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들이 이번 서비스를 제공받아 치아기능을 회복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학교 앞 21개소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올 3월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교 2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표출해 사고위험지역에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 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이 제한속도(30km/h) 초과 시 현재 주행속도를 점멸 경고하고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안내 경고문구가 작동표시 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통학어린이가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장수기자



대전현충원, 2020년도 새해맞이 참배행사 국립대전현충원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공공기관 및 단체장 등을 비롯해 총 86개 기관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 참배행사를 실시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육군훈련소 새해 첫 현역병 입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노동업)은 지난 6일 육군훈련소에서 올해 첫 현역병 입영행사를 개최했다. 현역병 입영 장정들이 육군훈련소 뒤러 홀에서 본인신분확인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있다.

### ‘2019 CNU 우수강의 교수 특강’

조두용 · 구혜경 교수, 우수강의 특강

충남대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모델 개발과 우수강의 확산을 위해 오는 1월 8일 오후 2시, 충남대 영담홀에서 ‘2019 CNU 우수강의 교수 특강’을 개최한다.

교수법을 공유하고 확산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2019 CNU 우수 강의’ 교원으로 선정된 사범대학교 기술교육과 조두용,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구혜경 교수가 진행한다. 두 교수는 지난 1월 2일, 충남대학교 2020년 시무식에서 우수강의 교수로 선정됐다.

조두용 교수는 특강에서 ‘공업역학’ 교과목에서 활용해온 스마트 칠판과 전자보드 프로그램 이용법, 뉴스를 통해 쉽게 풀어내는 강의법 등을 전달한다.

구혜경 교수는 ‘소비자학 세미나’ 교과목에서 적용해온 토론, 조별 활동, 거꾸로 학습법(Flipped learning) 등을 다른 과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강연한다. 이정복기자

###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유성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보다 더 정확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각 동별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며 주민등록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주불명등록자 확인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 “非기독교인 교직원 배제 말라” 인권위 권고

지난해 12월 학교에 제도 개선 권고... 충신·성결·한남대 ‘불수용’

충신대학교와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교직원 채용 때 비(非)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충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이들 학교가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를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충신대학교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 측은 전임 교원 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위 내용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학교 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

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0년 5월 10일 행정직 직원 채용 시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에 대하여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위 두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학교 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

식품의약품, 외국식품 무

신고식품판매 등 3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청양소방서, 2021년 말까지 특성소방대상물

### 화재안전 정보조사(3단계) 추진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화재안전 정보조사(3단계)를 추진한다.

청양소방서는 이번 화재안전 정보조사 실시에 앞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진행해 938개소 대상을 점검했으며, 이 중 166개소 대상의 불발사항에 대해 자진개선·조치명령 등을 내렸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체 조사 대상 외의 대상처를 방문하여 화재안전에 관련한 정보조사 실시 ▲자체점검 제출 의무대상 관계인 등 조사 후 제출 ▲건축물 개요, 이용지역, 연소확대 요인, 주변도로 여건 등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류일희 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세우기 위해 활동하는 화재안전 정보조사에 군민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화재안전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꼼꼼히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 준비 ‘박차’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교육청은 원활한 업무 추진

을 위해 1월 1일자로 담당 주무관 12명을 추가 발령하고 변호사 7명을 채용했다. 3월에는 장학사 3명을 새로 발령한다.

6월과 7월에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 과장과 장학사, 주무관, 신규 변호사 등 60여 명이 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에 모여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전반적인 내용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숙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환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월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2월 중순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계획이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각 교육지원청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 3월 1일부터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양질의 식품 공급 위해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양질의 식품 공급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민간 합동으로 시 및 5개구 식품위생감사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등이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설 성수식품인 과자류(한과, 떡류, 어육가공품, 두부류, 만두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와 제사, 전·튀김식품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대전시는 식품업소 점검과 별개로 제수용품인 생선류와 전·튀김

음식,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산패여부,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명절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방원 위생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설 성수식품 공급은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부적합 제품 유통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민원상담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 공주시 자율방범연합 강범심 금학여성지대장 취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하겠다!”



공주시 금학동여성자율방범대는 지난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금학여성지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승환 공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신인숙 대장에 대한 이임식에 이어 신임 강범심 대장에 대한 취임식이 개최됐다.

신임 강범심 금학여성지대장은 “금학동 자율방범대를 위해 애써

주시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각종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역 안전순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히 금학지구대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청소년 선도와 야간순찰 활동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애경 대장은 “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안전순찰 캠페인 봉사를 하시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동에서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서천소방서 “관내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 증가”

서천소방서는 서천군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전년보다 89%가량 감소한 반면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서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2건으로 전년 112건보다 10건(8.9%) 줄었다.

다만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등 총 8명으로, 2018년 3명보다 2.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인명 피해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자살방화로 인한 화재(3명)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도 2018년 593백만원보다 13%로 상승한 67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36건, 비주거시설 23건, 차량 16건, 기타 16건, 입아 11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5건(53.9%), 전기적 요인 16건(15.7%), 기계적 요인 14건(13.7%), 방화 6건(5.9%), 원인 미상 등 11건(10.8%) 순으로 발생했다.

서천소방서(서장 강기원)는 6월 1일 재난현장 최일선에 근무중인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예천 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 활동 여건 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해 서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재

래시장 등 화재 예방 활동 강화 및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강소방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천=김정환기자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인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취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부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 14시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5월 6일(수)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화) 17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5월 7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기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정복기자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이해 역량 제고

## 2020 학교 편성 교육과정 교장 연수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은 지난 6일 202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을 위한 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장 연수를 개최한 배경은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기(1~2월)에 앞서 교육과정 이해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 현장과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수에서는 학교지원센터, 서산행복교육지구, 서산사랑 999아라메 사업 등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과 2020년에 달라지는 교육과정 및

행정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환경 및 식품 위생 관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해 교육현장을 지원했다.

이선희 교육장은, 서산교육지원청은 2020년에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이라는 교육비전으로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도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계절학교 운영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관내 초등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전환교육 계절학교를 논산계룡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의 기회제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실시되었고 ▲ 2020 달력 만들기 ▲ LED전

등 꾸미기 ▲ 썬 불고기 피자 만들기 등의 꾸밈을 만족시키는 활동이 이뤄졌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이진구 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이번 계절학교의 경험이 학생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충남외국어교육원, 생후 28일 미만의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들 위해

##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4년째 참여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원장 박정숙)이 생후 28일 미만의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들을 위해 'Save the children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은 체온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생후 28일 미만의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들을 위해 모자를 직접 떠서 국제아동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에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이다.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사람당 2~3개의 실트레 키트를 구입해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모

자 뜨기를 실시해 4년째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박정숙 원장은 "직원들이 직접 만든 털모자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에도 작은 정성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은 원어민간사와 직원이 함께하는 헌혈운동, 월드비전 해외아동 돕기 기부금 후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정상범기자

##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 위한 업무 협약

세종시교육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14개 연구기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 및 소관 14개 연구기관과 7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교육연구 관련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사업

협력, 인적·물적 인프라 상호 교류 및 협력,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축적된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상호 협력하여 세종시 청소년 교육 지원 뿐 아니라 교육정책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 교육정책 및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인재 개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교육 연구 및 정책 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 올해 3월부터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충남교육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위해 조식 지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7일 올해 3월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을 위해 조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 시동을 건 충남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한 치원 높은 교육복지지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자율학습과 방과후수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석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게 된다. 조식은 86개 학교 796명, 석식은 100개 학교 2085명이 지원 대상이다.

충남교육청 김경신 학교지원과장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줄여 안정적으로 보내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 조치로 충남 교육복지는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천안교육지원청, 원탁토론회 개최

2020학년도 학교지원방향과 업무최적화 위해 가져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은 7일 상황실에서 교육국장장사들과 행정국 팀장 이상 간부직원이 모인 가운데 2020학년도 학교지원방향과 업무최적화를 위한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학교 행정업무부담 경감시키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방향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활기찬 직장 가꾸기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와 직장문화 개선방안, 양국 간의 유기적 업무 협조 등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도 있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 직원들의 동아리 활동(취미, 학습) 지원, 직장에 절과 감성을 키우는 직장교육 등 즐거운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과 더불어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가경신 교육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의 본질을 들려주는 한해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에 있는 조직문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화합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행복한 천안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천안=이정복기자

2020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 실현

##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7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초·중교장 대표와 지역중심학교장,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지구별 협의체 위원장, 공·사립 유치원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재난대응역량을 발휘하여 '2019 교육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체력 중심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제동행 독서문화기행'과 사랑의 연결고리 '가족이랑 힐링 나들이'를 운영하여 참여자 94% 이상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Wee센터의 학업중단속려 제프로그래밍 「나르샤」를 운영한 결과 참여학생 100%가 학업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는데도 앞장섰다.

2020년에는 지난해 추진 성과와 교육공동체 요구, 시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 구현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균등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행정'의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용 교육장은 "2020년 우리교육지원청은 학생은 저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학교는 사랑과 신뢰의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하여 대전서부교육이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충남도립대, 지역사회 환경현안 해법 공유

C-NEST캠프 개최

청양군 공무원 등 공동 참여

비점오염원 관리 등 해법 공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환경보건학과와 청양군은 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재학생 30여명과 청양군청 관련 공무원 10여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C-NEST 캠프를 개최했다.

C-NEST(충남도립대의 C와 iInnovation, Entrepreneurship, Society and Social Impact, Training) 캠프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프는 ▲1회 옹골 줄이기 ▲미세먼지 줄이기 ▲비점오염원 관리 등 3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충남도립대 재학생들은 그동안 전공분야 문제기반학습(PBL) 활동을 통해 구축한 자료와 대안 등의 결과물 제시했으며, 공무원과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으로 최종 정책을 다듬었다.

백경렬 환경보건학과 학과장은 "학생들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청양군정에 반영돼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도 전공과 배움이 삶의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감각을 키워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지역전통시장 활성화'와 2018년 '지역사회 노인복지문제 대책' 등을 주제로 C-NEST 캠프를 개최한 바 있다.

NAVER logo and search bar with text: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 추진

## 공주시, '옥룡동 은개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인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업무를 추진하는 '옥룡동 은개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충남도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도시재생 실행의 중심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옥룡동 은개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 옥룡동 뉴딜사업지 주민들로 준비단이 결성된 후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거쳐 이번에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국토부 인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옥룡동 은개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주차장, 공유상가를 운영



하는 등 마을관리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상담과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옥룡동 은개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뉴딜사업 성공을 이끌고 나아가 주민자치의 문화를 여는 열쇠"라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주 옥룡동 일대는 지난 2017년 '여시를 누리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트레버스'라는 비전으로 도시재생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에 선정, 335억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동체가로 개설 등을 추진 중이다.

공주=정상범기자

달별	지방세 납부일정
1월	• 동쪽면(세정기) : 1.16 - 1.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0%할인) : 1.31
3월	• 환경개선 부담금 : 3.16-3.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7.5%할인) : 3.31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일까지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 6.16 - 6.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5%할인) : 6.30일까지
7월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7.1 - 7.31 • 재산세연분분, 주택분 1/2, 전액, 항공기) : 7.16 - 7.31
8월	• 주민세(공공분) : 8.16 - 8.31
9월	• 재산세(도지분, 주택분 1/2) : 9.16 - 9.30 • 환경개선 부담금 : 9.16 - 9.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2.5%할인) : 9.30일까지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 12.16 - 12.31
기타	• 자동차특세(특별징수), 주민세(종합소득), 레저세 : 다음달 10일까지 • 지역차입상환세 : 다음달 말일까지

## 천안시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부

천안시는 지방세 징수를 제고 및 세무상식 부재로 인한 불이익 감소를 위해 지방세 중심 세무정보를 안내하는 탁상달력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달력은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특별납세의무 및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납세권리 보호제도, 지방세 납세보호관, 마을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지방세 관련 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 유의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고 천안의 주요 관광명소, 사적지, 천안12경 등을 배경으로 사용했다.

달력 뒷면을 보면 천안삼거리,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 사적지, 아라리오

광장, 병천순대거리, 태조산 각원사, 광덕산 설경,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왕지봉 배꽃, 입장 거봉포도마을, 천안홍타령춤 축제, 천호지 야경 등을 소개하고 있어 천안을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탁상달력 400부를 제작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이번 탁상달력 제작으로 주민들에게 간단한 지방세 세금상식과 함께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 및 사적지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설 선물은 우리지역 '한발 민속한과'로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을경)을 찾은 고객이 설 명절을 맞아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한발 민속한과'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지하층 특설매장에서는 23일까지 40년 전통의 맛을 자랑하는 유과, 강정, 약과, 다식 등 명절 간식으로 사랑 받는 한과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 '중소기업 경영환경 ·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내수활성화정책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에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67.0%의 기업이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노동시간 유연성 마련' (37.3%),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등 판로지원' (35.0%)이 그 뒤를 이으며 내수, 수출, 노동시장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영환경 전망으로는 절반 이상(57.0%)의 기업이 작년과 유사할 것

로 판단했으나, '더 악화될 것이다'는 기업이 33.7%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9.3%)보다 다소 많은 응답을 보였다. 악화 원인으로는 국내 사유는 '내수부진 지속' (77.2%)이, 대외 사유로는 '전 세계적 성장률 둔화' (54.5%)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2020년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신규거래처 · 신규판로 발굴' (59.7%)과 함께 '사업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 (36.0%), '경영환경 악화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 (34.3%)를 언급하며,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한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요인(핵수응답)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심리 회복 여부(55.7%) ▲핵심사업의 시장상황(46.3%) ▲모기업 · 거래처의 사업 업황 변동(28.0%)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2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불안정한 대외경제 여건,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내수부진 장기화 등 대내외 경영 불안요인은 쉽게 개선되지 않겠지만, 최저임금 상승폭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기간 부여 등 일부 정책변화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할 만한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부여군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17억원 지급

벼재배농가 8917농가에 평균 19만3000원 지급예정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1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쌀 직불제 목표가격은 '13~17년산 188,000원/80kg에서 26,000원 인상된 214,000원/80kg으로 결정되었으며, '18~'19년산에 한시 적용된다.

쌀 변동 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18~'19년 214,000원)이 수확기

(2018.10~2019.1) 산지 평균 쌀값보다 하락한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18년 변동 직불금 지급단가가 80kg기준 2,544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벼를 재배한 8,917농가에 ha당 170,448원이 농업중앙회 부여군 지부를 통해 농업인별 통장계좌로 1월말 입금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전 변동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통한 많은 농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자년 [庚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도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덕 기

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 천 순 상



동정

오리엔테이션



김홍장 당진시장 =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가세로 태안군수 =8일 오후 1시 30분 소면면사무소에서 '2020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

청양퍼스트 운동 정식명칭 현상 공모

오는 31일까지 접수 · 대상 100명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오는 31일까지 지역활성화운동인 '가세청양 퍼스트 운동'의 정식 명칭과 구호(슬로건)를 현상 공모한다.

공모 참여는 청양군민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청양군 홈페이지에 접속, 공모전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획감사실 담당자 메일(photozoa@koia.go.kr)로 접수하면 되며, 우편 접수는 31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다지기 위한 의미의 명칭과 구호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듣는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응모해야 하며, 글자 수는 명칭의 경우 청양군 포함 10자 내외, 구호는 16자 내외가 바람직하다.

접수된 제안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70만원), 장려상 1명(50만원)을 선정하게 된다.

이 운동은 청양지역의 농산품과 제조업, 지역 업체의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지역제품과 지역 업체 먼저 이용하기를 기본 골자로 하면서도 단순한 애항심 마케팅을 넘어서 팔리는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생산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산품의 경우 푸드 플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산물 디자인이나 기능성도 충남도립대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속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자금심 고취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에 변화를 위해 고객 입장의 시설 개선과 친절 마인드 향상에 주력한다.

군은 이미 지난달 '청양군 범군민 운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기관, 단체, 지역리더, 상인회 등 민관을 망라한 추진기구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각 읍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출향인 단체 등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돈관 군수는 "청양퍼스트는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사력을 다해 매달려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기전략'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고 모처럼 맞이한 대도시의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청양군 친환경 스마트농업 전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조기 정착 ·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의지 다져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가 100세 시대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 스마트 농업 도입 등 친환경 먹거리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섰다.

센터 직원들은 지난 6일 사무실을 갖고 올해를 '새로운 도전, 행복한 동행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의 해'로 정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조기 정착, 농산물 안전성 분석,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의지를 다졌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CT)을 융합한 스마트팜 통합관제실 운영 등 스마트농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생산 기



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육성하면서 농촌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

인 정착을 위해 갈등해소협의회 구성,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단계별 맞춤형서비스 등 현장 농업인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형 영농기술 또한 보급한다.

특히 해가 지날수록 농업인 호응도가 높아지는 농업기계 교육임대사업을 더욱 강화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돕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종권 소장은 "올해는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설치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행복한 농업인, 행복한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새해 영농설계는 '농업인 실용교육'

태안군, 7일부터 2월 18일까지 4300명 대상 총 28회

태안군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농업인 4,300명을 대상으로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7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하 영농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에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교육 위주로 실시한다.

이번 영농교육은 영농기술 교육 28회(3,660명), 전문농업인반 교육 6회(640명)에 걸쳐 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7일 관내 마을 이장 및 농업인단체 임원을 위한 '지역리더반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군은 이번 영농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중심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돼 정착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핵심 실천사항 교육을 중점으로 해 ▲타라지는 농정시책 홍보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대책 ▲당면 현안과제 해결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자체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간 전문강사 교류를 통해 보강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군 보건의료원과 연계해 혈압·당뇨 등 기초건강검진과 구강보건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 이들이 지역의 핵심 농업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영농교육에 참가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41-670-5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태안군 대학생 군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래의 지역리더 30명 선발 · 행정보조 현장방문 체험



태안군이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제

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2020 동절기 대학생 군정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대학생 군정체험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 운영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12월 태안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교 재학생 30명을 선발했다.

군정체험에 참여하게 된 대학생들은 행정업무 보조와 함께 군의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는 현장체험에 나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갖게 된다.

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대학생들은 이날 곧바로 본청 및 직속기관, 읍·

면에 배치됐다.

대학생 함수현(23, 태안읍) 씨는 "고향인 태안에서 사회경험도 쌓고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안군은 이번 군정체험이 대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 여름방학에도 대학생 군정체험을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가 될 대학생들이 방학을 건전하게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똑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학생 군정체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당진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 실시

분쟁 해소를 건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당진시가 오는 9일부터 입주자 간 화합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2020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임대 및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47개 단지 326개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장, 부녀회, 노인회 등 370여 명이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은 연말까지 월 4회 각 아파트별로 진행되며, 특히 주민편의를 위해 직장인 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야간시간에 해당 아파트로 찾아가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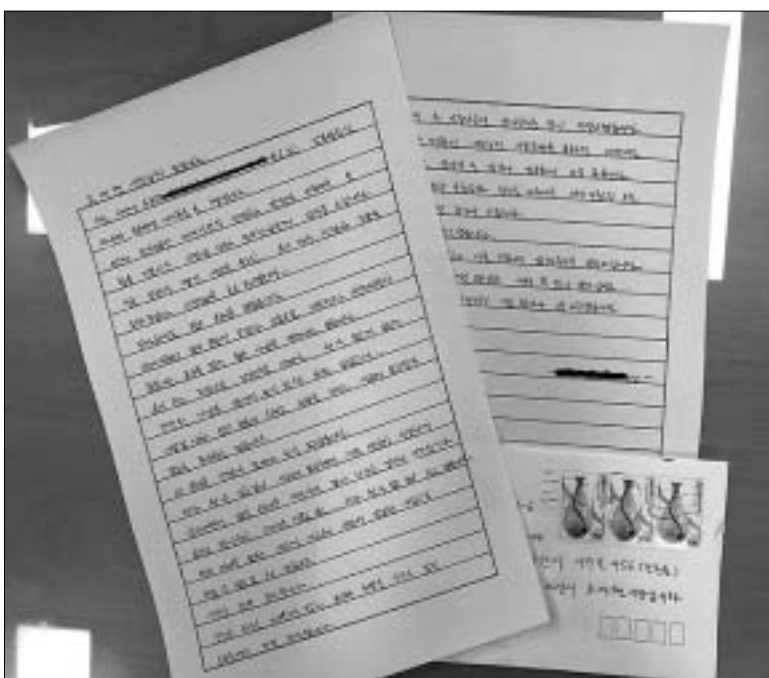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주체 및 관리규약 운영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투명한 선정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하자처리와 분쟁조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참석자에게는 교육이수 수료증을 발급하고, 당진시 아름다운 아파트 선정 시 교육참석자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당진시는 공동주택 주거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갈등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실용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행복기움 사례관리대상자로부터 감사서신 받아



아산시 행복기움지원단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례관리대상자 남편으로부터 감사서신을 받았다.

서신을 보낸 A씨는 지난 18년 11월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암 말기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오갈 곳이 없어 아산시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시 사회복지과와 행복기움지원단은 해당 가정을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긴급 주거신청을 통해 주거지원에 도움을 줬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300만원을 후원과 복지관과 연계해 포장 이사비용을 지원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위암 말기인 사례대상자의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는 긴급지원과 후원금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A씨는 감사서신을 통해 "몇 번의 서신을 올리고 뜻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사 간절함을 호소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은혜를 입었다"며, "아산시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아픈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 이전보다 더욱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아산시 행복기움지원단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아산=리영주기자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 음악·요리·등으로 노인 자살예방도모

당진시 보건소는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사회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합덕읍 교동 1리를 비롯한 지역 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행복마을'의 운영을 시작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우울감, 자살 예방교육, 아로마세라피, 음악·요리·미술치료, 신체 프로그램 등 마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 자살 예방을 도모한다.

또한, 주민 개개인에 대해 우울 선별검사 실시로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 상담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정신의료기관과 연계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2년부터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매년 추진했으며, 농한기 동안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우울증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주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는 96.3%로 매우 높았으며, 우울 선별검사 결과 총 31개의 마을 중 28개 마을에서 사후 우울감이 감소했고, 사전 우울검사와 비교해 전체 평균 1점가량이 줄어든 효과를 보였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사회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생명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Advertisement for '1st Priority' with contact number (042)538-3030.



우리/동네

올해 농업 시범사업 참여 농가 모집

계룡시, 12개 사업, 23농가 모집... 1월 29일까지 접수

계룡시가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품질향상 등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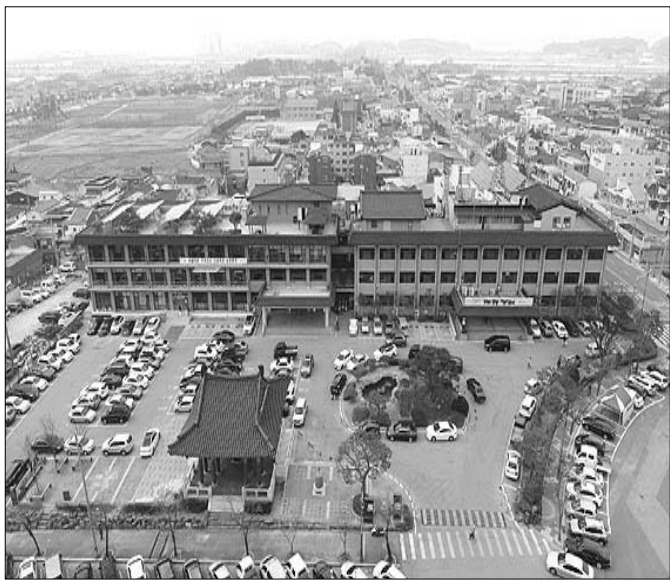
올해는 스마트 정밀 농업, 이산화탄소 변화에 따른 원예작물 안전생산 등을 목적으로 12개 사업에 23농가를 선정해 1억 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원격제어 시스템 ▲새 소득 작목 아스파라거스 재배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시설 설치 등이다.

신청자격은 계룡시 거주 및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분야별 대상 작목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 이달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별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계룡시 농업인학 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042-840-3407)로 문의하면 된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부여시장·부여중앙시장·극장 등 8개소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민속 고유의 명절 설을 대비하여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 명절 중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부여군시외버스터미널,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극장) 등 8개소에 대하여 1월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중점으로 8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정기안전검사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며, 예산소요가 크거나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보수·보강계획 수립 후 정비,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시기별·계절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관내 교량, 노유자 시설,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 전기, 가스, 건축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시설주에게 시정을 조치토록 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면서, "올해에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취약요소 일제점검 등을 실시해 군민들의 안전 경각심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김성규기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계룡시, 올해부터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가능

계룡시는 경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우 차량으로 부과용기간(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내에 폐차,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후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연납분 납부 후에는 매년 1월 갠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1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내 신청을 당부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본격 개시

부여군, 맞춤형돌봄서비스로 통합해 다양한 서비스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새해부터 6개 사업으로 분산됐던 노인돌봄 서비스를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부여군청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8개의 장기요양센터에서 각각 제공해왔다.

특히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6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몸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요양등급을 받아 제공받는 요양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제도로 돌봄을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악화를 예방하고 노인이 홀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며, 그 중 부여군의 기존 돌봄 이용대상자 1,80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연계되며, 신규 대상자는 2020년 3월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적합 판정 후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여군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체계 개편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기관별로 필요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부여성심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부여돌봄이사회협동조합에서 권역별로 공개 모집했다.

1권역은 부여성심원(041-836-

3606)에서 담당하며 수행 읍·면은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으로 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원사 50명이 모집되었고, 2권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041-837-6868)에서 담당하며 수행면은 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남면이며 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7명이 모집되었다.

3권역은 부여돌봄이사회협동조합(041-833-1887)에서 담당하며 수행면은 홍산면, 옥산면, 충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이고 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4명이 모집되었다.

군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시행으로 경력단절 및 어르신 봉사에 뜻을 가진 부여군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 욕구에 맞게 안전,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연계 서비스,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부여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여=김성규기자

통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 8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미래 농업반)에 참석, 오전 11시 한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한산남여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오후 1시 30분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8일 오전 10시 내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비인면 올해 후원 릴레이 순조로운 시작

관내 농산물 유통업체인 서천농산물유통의 전영섭 대표는 지난 2일 비인면의 후원 릴레이 사업인 '행복을 더하는 비인'에 2020년 첫 번째 기부자로 참여하며 사업의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릴레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해의 의미 있고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는 후원금과 헌혈 증서를 기부했다.

전영섭 대표는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착한 가격'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비인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편 '행복을 더하는 비인'은 새로운 후원자를 릴레이 방식으로 발굴해 이웃을 향한 온정을 나누는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기부금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천=김태선기자



마서면 박근배 씨

이웃사랑의 쌀 80포 기탁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에 거주하는 박근배 씨는 지난 6일 마서사랑후원회(회장 김용찬)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직접 농산물은 쌀 80포(800kg)를 기탁했다.

박근배 씨는 지금까지 13년 이상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사랑의 쌀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용찬 마서사랑후원회장은 "매년 변함없는 이웃사랑으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는 박근배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탁해준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서사랑후원회는 이날 기탁받은 쌀을 마서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기타 저소득 가정 8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정호 후보자 당선

체육회 근무환경 개선,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체육회 활성화 다짐

논산시 체육회(회장 황명선)는 지난 6일 논산문화원에서 열린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정호(59세)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157명 중 150

명이 투표했으며, 이정호 당선자가 75표(52%)의 득표를 얻어 체육회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정호 회장은 1961년생으로 전남체육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 주식회사 태도화

학, 태양전기를 현재 운영 중이다. 이정호 회장은 "충남체육고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체육회 근무환경 개선, 지역 체육 인재발굴 및 육성, 각종 스포츠대회와 지자체간 체육 교류 확대, 체



육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선인은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인준절차 이후 16일부터 회장직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계룡시 2020년 셋째 자녀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계룡시가 2020년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자녀 가정의 입학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

계룡시는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로 셋째 아이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가정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해 왔다.

대상자는 3월 입학 후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대상자 개별 계좌로 축하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학축하금의 확대 시행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도움이 될 수

논산시농업기술센터 2020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내실있는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농촌경쟁력 향상 도모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20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품목별 전문기술 집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현장 기반을 조성하고, 신기술 실용교육 제공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별 특화품목기술 교육, 고 품질 품종보급, 시비 및 경영개선 등 종합적 개선 중점교육, 국내외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농산물 마케팅 홍보 전략 등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교육은 물론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

한 기술교육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농업정책을 반영해 새로운 농업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교육에 편성했으며, 그동안의 수요조사를 통한 영농시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11개 과정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벼농사분야 ▲채소분야 ▲

과수분야 ▲농촌체험분야 등 분야별 교과목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친환경농업, 바이러스과정 등 공통과정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년도 농사에 대한 성과분석과 미래농업 발전전략 및 역량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관련한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정보팀(041-746-8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2020 상권활성화사업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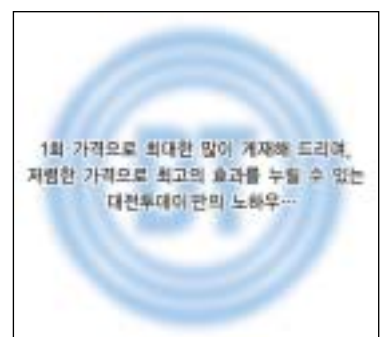
협치·강소상인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재단법인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여군의회, 군 관계자, 관내 상인조직 임원 및 관내상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020 상권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0 상권활성화사업 설명회는 상인조직과의 협치를 통한 부여군 상권활성화라는 가치 아래 기 진행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재단 지원사업의 이해와 상인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부여군 상권활성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는 관내 8개 상인조직 상인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2020 부여군





통정

제60차 정례브리핑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은 8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실에서 제60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8일 오전 10시 웅천읍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오후 1시 20분 대전4동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오후 5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보령 화력 환경감시단 위촉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문정연 금산군수는 8일 오전 10시 20분 금성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동계워크숍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일~10일 12시에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충남교육장협의회 동계연수 및 전국교육장 동계워크숍에 참석.

“호시마주의 자세로 시민 체감 변화와 성장 만들 터”

맹정호 시장, 언론인과의 대화서 강조... 2020년 시정 추진방향 · 주요현안 추진계획 밝혀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주요 성과와 2020년 시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맹 시장은 “호시마주의 자세로 소통과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맹 시장은 “2019년은 시민중심 변화의 원년으로, 민선 7기 시정의 주춧돌을 놓는데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며 주요 성과로 ▲시민중심의 시정 추진을 통한 73개 기관표창 수상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인입철도 등 16개 핵심사업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가죽센터, 읍내농도시재생뉴딜 등 6개 핵심사업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929억원 확보 ▲2020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금액인 1,317억원 확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서산바이오·웰빙특구 계획 변경 확정,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산 4사의 안전·환경 분야 8,070억원 투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진전을 꼽았다.

이어 맹 시장은 “2020년은 민선



7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이자 서산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해”라며 “호시마주의 자세로 업무추진 속도를 한층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겠다”고 올해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미래기반 조성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력 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여유 기반 조성 ▲활력 있는 농어촌 조성 ▲시민을 위한 지

를 선정하겠다는 3가지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추진을 위해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과 전문가의견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정호 시장은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귀를 열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며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새해를 맞아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1월 31일까지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및 농업마인드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난 6일 시작된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 노형일 전문강사가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신속히 대처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감을 나눴다.

이갑수 소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영농설계의 출발점이며 농업의 희망을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교육과정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에 어려움 없도록 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독향상에 전념할 계획이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 전화(041-750-3529) 또는 홈페이지(www.gaumsn.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산=김정환기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식



공주시 월송동(동장 홍민숙)은 지난 6일 강북도서관에서 주민자치위원과 프로그램 강사,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래와 툃타, 풍물, 웰빙댄스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김명환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월송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홍민숙 월송동장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앞으로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건강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도입

금산군, 관광지 방문 및 음식점 이용시 지원

금산군은 민선7기 최우선 공약과제인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고자 체류형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와 수학여행을 실시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조건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6명,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당일 관광은 관내 관광지 1개소

방문과 음식점 1개소 이상을 이용하면, 6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1박시 관내 관광지 2개소 방문과 음식점 2개소 이상을 이용하면 20인 이상 내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인당 2만원, 6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 그리고 50인 이상 수학여행단에게는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관광 인센티브는 금산군 홈페이지

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체관광 7일전 관광계획서와 여행일정표, 관광객 명단을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문정연 금산군수는 “금산군 관광유치증대를 통해 금산군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세 혜택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연간 세액 52만원의 10%인 약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절세 혜택을 주기 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연 4회 자진신청을 받아 연납할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령시

세무과전화 041-930-3521나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고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해도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

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 말소 · 이전 등 소유권 변동이 될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 계산해서 환급해주며, 차량 이전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시에서는 지난해 과세대상 4만 8980대중 25.4%인 1만244대가 연납을 신청하여 2억 3900만원의 절세혜택을 받았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정착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여유가 있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도 지방세 절세방법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고맛나루장터, 설맞이 할인 이벤트 팡팡 구매후기 작성 시 쿠폰지급



공주시(시장 김정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소평물인 ‘고맛나루장터’에서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맛나루 혼합산물세트 5종(200개)과 알밤과 떡국떡(300개), 고맛나루배 등 총 3종의 기획상품 세트를 출시하고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할인 판매전에는 18개 입점업체가 참가해 고맛나루 쌀과 밤, 계통백미주 등 공주시 특산물과 밤 가공식품, 과일, 반찬류 등 95여개 품목이 최대 36%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배송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상품 구매후기 작성 시 우수 후기 5명에게 5천원 쿠폰이 지급되고, 결제금액의 3%를 고맛나루장터에서 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상품 적립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선물 구매 방법은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www.gminger.com)에서 주문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041-840-8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보령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실·단·과장, 시설관리공단 부부장, 읍면동장, 분청 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보고회는 경제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의 시정 여건을 분석하고, 올 한해 역점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민선7기가 성숙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으로 정치적 이슈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을 확정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른 올해 10대 역점 과제로는 ▲지역소멸위기에 대응을 위한 사회적 돌봄 및 청년정책 강화 ▲일자 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통한 살맛나는 지역경제 여건 조성 ▲국도 77호 연계 해양치유 및 도서·해양관광 거점 개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활력 및 신산업으로 극복 ▲안락한 출산임무 수행 및 지역공약 발굴로 국가정책 반영을 꼽았다.

또한 ▲미래 20년을 내다보는 전략과제 선정 추진 ▲2022 보령해안머드박람회 준비 및 마이스산업도시 도약 ▲도심·농어촌 재생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공동체 복원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생활 SOC확충 ▲공공기관 적극 유치로 지역 균형발전 및 성장동력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인구감소 대응,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전략에 초점을 두고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을 활용해 혁신도시 친환경 도빌리티 공공플랫폼 조성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가족센터 건립 및 주요권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사업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이 권한을 갖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공유경제플랫폼을 조성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활력을 도모하고, 청년 취 ·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혼인을 증가 및 지역적외의 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해양, 관광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시민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령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며, “올 한 해도 교육과 의료, 기업, 관광 등 시장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김태성기자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3대 난방용품의 안전 사용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난방용품은 전기장판·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로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난방용품 안전수칙으로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해야 하며, 전기히터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환두 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꺼두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연통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난방용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화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한국돌래경영체 서산시협의회 사랑의 쌀 10kg 500포기탁

서산시는 지난 6일 (사)한국돌래경영체 서산시협의회 회장 이우열에서 “사랑의 쌀” 10kg, 500포(1,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쌀은 회원들이 심시일반으로 마련했으며, 시는 이번에 기탁된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우열 회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순천향대 '고 서석조 박사' 특별 사진전

## 고인의 생전 삶과 정신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대학 설립자 고(故) 함설(鄕雪) 서석조(徐錫組) 박사 특별 사진전이 지난 6일부터 교내 향설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특별 사진전은 지난해 11월 25일 대학부속병원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서울병원에서 시작돼 부천병원, 구미병원, 천안병원에서 차례로 순회 전시

된 후 대학에서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설립자께서 서거하신지 20주기를 맞아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 학술대회, 평전 발간 등 고인의 생전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40여점의 사진과 10여점의 신문 기사 등이 마치 병풍을 연상시키듯 총 7폭으로 구성됐다. 1폭당 크기는 가로 1미터 세로 2.5미터로 ▲1면은 안내면으로 ▲2면은 서석조 박사 일대기를 ▲3면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의과대학에 이르기까지 청년기를 ▲4면은 미국 등 해외 유학 및 관련 사진이 ▲5면에는 국내 세브란스, 가톨릭, 고려병원 등 타 병원에서의 활약과 근무기록 사진들이 ▲6면에는 한남동 서울병원 개원과 초기 의과대학, 구미병원 천안병원 착공식 등 관련 사진이 ▲7면에는 타계 하시기전의

진료모습과 4개병원의 현재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이운교(여, 경영학과 18학번) 학우는 "그 동안 우리대학 설립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사진전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대학을 세우셨는지 알 수 있어서 서석조 박사님 앞에 숙연해지고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또다른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함설 서석조 박사는 현재 한남동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설립해 최고의 의술과 합리적 경영을 바탕으로 현재 순천향대학 부속병원의 기틀을 마련했고 의료 사각지대인 낙후 지역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 부천, 구미 등 전국 네 곳에 종합병원을 설립해 광재민생을 펼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또, 서 박사는 순천향병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며 더 나은 진료와 연구, 교육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인 1978년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해 후학양성에도 힘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대학교육의 실용성과 함께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한 교육자이자 개인적 영달이라는 작은 꿈을 버리고 체계적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큰 꿈을 선택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신경내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고 '뇌졸중(腦卒中)'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의학자이자, 환자들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병을 앓는 것처럼 가슴이 파는 듯한 가슴 따뜻한 의사로 존경받고 있는 인물로 현대의학의 선구자이다.

이번 전시는 이달말까지 열리고 2차 전시는 개관을 앞두고 신학기에 생활관 로비 등으로 장소를 옮겨 전시가 이어질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대 교수학습개발원 '학생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이중서) 교수학습개발원(원장 이재창 교수)이 7일 대학 30주년기념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학생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교직원과 재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개선 안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전 신청 및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됐다.



대전충남병무청, 금년도 중점추진 사업 발굴 TF 회의 개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노동업)은 지난 6일 2020년 중점 추진사업 발굴 등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 과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적극행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회의를 진행했다.

##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39개 국립대 2차년도 우수성과사례 공유

전국 39개 국립대가 한자리에 모여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이 1월 9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경북대 주관,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회장 조남대) 주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39개 국립대학 육성사업 회원교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

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김규용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이우철 경북대 교학부총장이 환영사를,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정병석 전남대 총장, 류동민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등이 축사를 전한다. 이어 허임 호선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국립대학의 역할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를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2부는 수도·강원권(10개교), 영남권(12개교), 호남·제주권(9개교), 충청권(8개교) 등 권역별로 나눠 2차년도 성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10개 국립대 부처장들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용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장(충남대 기획처장)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39개 모든 국립대가 경쟁과 대립의 과거를 극복하고,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연구 역량 강화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인 2019년에는 총 사업 예산이 1,5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립대 정부재정지원 사업 규모로 발전해 국립대에게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번 포럼은 국립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대전서부Wee센터, 위기학생

위한 전문치료지원사업 협약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웅) Wee센터는 7일 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전문치료지원 5기관과 전문치료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전문치료지원사업은 서부지역 위기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치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의 정서 및 학습결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문치료지원기관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비음심리상담센터, 아이미래심리언어상담센터, 김사이동청소년상담센터 및 행복나무아동교육상담센터 5개 기관이다. 올해 전문치료지원사업은 기존 협약된 대학 및 종합병원인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및 충남대학교병원을 포함한 8개 기관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

책나눔사업" 유공표창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지난날 31일 경기도지사로로부터 '경기도 책나눔 사업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유공 표창은 건협이 도서기증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건협은 지난해 창립 55주년을 맞이해 직원이 모은 900여권의 도서를 지역사회에 기증했다.

채종일 회장은 "이번 도서 기증으로 지역 사회의 독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정서 함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문화 조성을 위해 더 많은 활동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충남지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전지점에 123권의 도서를 전달한 바 있다.

송병배기자



## 중부지방산림청, 2020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 개최

품질 높은 산림사업 추진 결의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는)은 7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충청안전체험교육장에서 각

관리소 소속 영림단원과 직원 등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산림사업 착수를 위한 "2020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품질 높은 산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산림사업장 내 산복예방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의 사전 차

단을 위한 산림기술법 교육도 병행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 지역에 나무심기 39억원, 숲가꾸기 93억원 등 총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91ha에 나무를 심고 5,330ha의 숲을 가꾸어 갈 예정이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숲가꾸기는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만들어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숲가꾸기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 세종시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제작·배포

농업분야 2020년도 달라지는 사항 등 수록

세종시는 농업분야 2020년도 달라지는 사항 등을 수록한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책자 300부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정책제 변경사항, 농산물품질 관리원 세종사무소 신설 등 올해 변경되는 시책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농업 시책,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이 수록됐다.

안내 책자는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

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2020년 농업정책관 소관 사업계획 책자도 이달 중순에 제작해 읍면 담당자 설명회와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농업분야 각종 사업,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다"며 "안내책자를 통해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

세종=김태선기자

##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페르소나 전공별 취업디자인캠프'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는 자기분석 및 전공별 기업 동향 분석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페르소나(Persona) 취업경험 디자인 캠프'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임상훈 교수가 개발한 취업전략과정으로, 재학생 40여 명과 함께 페르소나 기반 시나리오 분석 및 전략적 사고 방법에 기반한 역량 개발을 진행한다.

경험디자인(UX) 방법론의 일종인 페르소나 기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본인을 대신할 가상의 인물인 '한남대 페르소나'를 도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취업 전략을 설계하게 된다.

특히 재학생들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 및 사회진출을 위한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기 위해 전공별 팀 활동을 통한 실현 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페르소나 취업디자인캠프는 기존의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대졸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을 습득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취업전략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 주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치복귀 선언과 함께 국회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미래정책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미래성장판은 닫히고, 외교안보는 위기인데, 진보와 보수는 사생결단식 행태에 몰두하고, 불공정 사회는 고착화되었고, 2012년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전 국민적 분노가 안철수현상으로 분출되었듯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8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적대적 이념대결을 넘어 공정, 혁신,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시대적 과제 모색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현 집권세력의 이념대결 정치 추구와 그로 인한 국정실패로 인해 국민 분노가 높아만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오늘 날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며 토론회 개최의의를 전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 "세세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들은 기득권 정치세력들에게 볼모로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정복기자

## 아산시청소년재단

## 이사장·상임이사 취임식 가져



아산시청소년재단이사장 현재규,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29에 소재)은 지난 6일, 청소년재단 및 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과 간소하게 이사장 및 상임이사 취임식을 가졌다.

시는 2013년 9월 청소년 문화의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2019년 7월에 준공을 하고 2019년 11월 중순에 아산시청소년재단 및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채용을 마쳤다.

그간 시는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에 많은 청소년들이 집중돼 운영을 되고 있어 시는 배방, 탕정 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연면적 3,226㎡(977평)의 규모로 신도시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코칭센터 설치와 청소년동아리, 음악미디어놀이대, 국제교류센터 및 교육문화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현재규 이사장은 "아산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정책의 구심점을 갖게 될 청소년재단으로서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끼며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하나 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아산시 청소년정책에 발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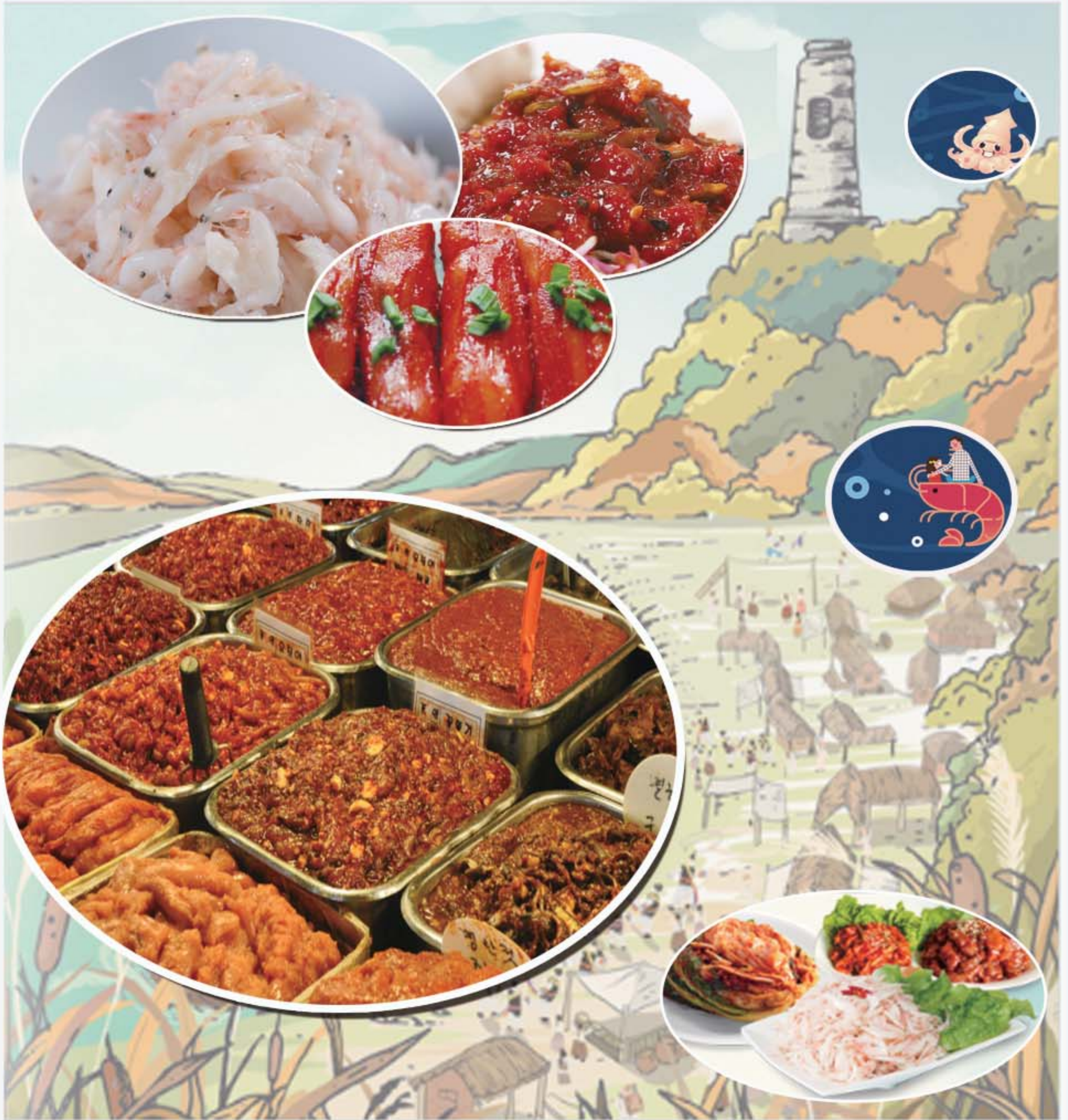






# 대전투데이

## 논산 강경으로 젓갈사러 오세요~~



주 관 |  대전투데이 

후 원 | 

 논산시의회  
NONSAN CITY COUNCIL

 충청남도논산계통교육지원청  
CHUNGCHONGNAM NONSAN OFFICE OF EDUCATION